

韓國 大學生들의 宗教的 態度

鄭 逢 恩*

- I. 研究動機
 - II. 研究方法
 - III. 結果 및 考察
 - IV. 다음 研究를 위한 提案
- 참고문헌
부 록

I. 研究動機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 교육행정 및 기능의 관점에서 떠나 좀더 심층적인 측면에서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종교에 관한 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비기독교계 대학생의 종교적 태도와 비교를 통해 기독교계 대학의 종교 교육의 효과를 검토해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종교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본연구는上記한 목적 이외에도 기독교 집단과 타종교 집단의 반응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종교 자체의 역할을 좀더 명백히 하려는 데 그 부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II. 研究方法

1. 질문지 작성

① 본 연구를 위해 작성된 질문지는 매우 호의적인 진술(strongly agree), 호의적인 진술(agree), 중간입장의 진술(undecided), 비호의적인 진술(disagree), 매우 비호의적인 진술(strongly disagree) 등 *Likert*식 5단계 반응⁽¹⁾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총 40개의 문항이 수록되었으며 질문지 末尾에 종교인의 경우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관한 불만이나 기타 주관

*文理科大學(서울) 敎授

(1) A nne, Anastasi; Psychological Testing 2nd Ed. pp. 551—552.

적 의견을 자유로이 응답하도록 공란을 주어 이 자유 반응에 대한 내용 분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② Likert식 5단계 척도로 표시된 질문에 반응하도록 작성된 총 40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범주로 나뉘어져 있다.

- a.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문항—6개
- b. 종교 일반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문항—5개
- c. 종교적인 윤리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문항—4개
- d. 신앙심에 이르게 되는 動機(motive)에 관한 문항—4개
- e. 神의 이미지(image)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문항—8개
- f. 종교와 관련성이 있는 사회적 태도에 관한 문항—6개 (그런데 이 6개 문항은 Eysenck⁽²⁾가 연구했던 사회적 태도에 관한 문항 50개 중에서 종교와 관련되어 있어 발췌한 것이다).
- g. 종교로 기우는 마음보다는 의지적인 자아가 더 강조된 문항—4개
- h. 來世에 관한 문항—1개
- i. 종교인에 관한 문항—1개
- j. 기타—1개

③ 각각의 문항은 응답자가 기독교적 입장에서 반기독교적인 입장으로 또는 그 逆으로 反應轉移現象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연구자의 의도가 表出되어 反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배열하였다.

2. 질문지 표집

① 종교집단과 비종교집단, 남학생과 여학생의 反應差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표집하였다.

- a. 기독교계 대학—충전대(남·여) 서울여대(여) 이화여대(여)
- b. 천주교계 대학—서강대(남·여)
- c. 불교계 대학—동국대(남·여)
- d. 유교계 대학—성균관대(남·여)
- e. 비종교계 대학—서울대(남·여) 고려대(남·여) 한양대(남·여) 숙명여대(여)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계 남학생 집단으로 충전대학교만을 표집에 넣은 것은 충전대학교로 기독교 교육의 효과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한 연구자의 의도 때문이었다.

② 질문지는 모두 1,300매를 배부하였는데 회수된 질문지를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Eysenck, H.J.: Sense and Nonsense in Psychology: A volume of the pelican psychology series. p.350.

- a. 기독교계 대학의 기독교집단 : 남—67매 여—65매
- b. 천주교계 대학의 기독교집단 : 남·여—63매
- c. 비종교계 대학의 기독교 집단 : 남—58매 여—54매
- d. 천주교 집단 : 남—52매 여—41매
- e. 불교집단 : 남—53매 여—42매
- f. 기독교계 대학의 비종교집단 : 남—76매 여—73매
- g. 천주교계 대학의 비종교집단 : 남·여—87매
- h. 불교계 대학의 비종교집단 : 남·여—96매
- i. 유교계 대학의 비종교집단 : 남·여—92매
- j. 비종교계 대학의 비종교집단 : 남—107매 여—103매

3. 자료정리

① 위에 열거한 a 집단에서 j 집단까지, 각 집단별로 총 40문항에 대한 기독교적인 응답 총수의 평균치를 내고 이 평균치로써 각 집단별 기독교적 경향의 정도를 파악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의 기독교적 응답이란 대체로 기독교적 입장을 취한 응답이거나 온전한 편에 선 응답을 취한 것이다.

② 上記한 a 집단에서 j 집단까지, 각 문항별로 총 40문항을 5단계 의견 및 집단별 백분율을 내고 이 백분율로써 각 의견에 대한 집단별 찬반의 정도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의 백분율은 편의상 소수점 이하를 생략하기로 하였다.

③ 上記한 a 집단에서 j 집단까지, 집단별 백분율 이외에도 총 40문항에 대해 학과(계열)별, 학년별 5단계 반응에 대한 백분율도 산출해 보았다. 그런데 학과(계열)별, 학년별 분류는 결과 파악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 비종교 남학생 집단만으로 표집을 통제하였다.

④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기술하도록 제시된 자유반응들의 내용은 연구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종합적으로 분류해 보았다.

⑤ a 집단에서 j 집단까지의 집단별 호칭은 편의상 기호로만 약술하기로 하였다.

Ⅲ. 結果 및 考察

1. 기독교적인 응답 총수의 비교

① 각 집단별 비교<표 1—①>

a. 종교집단이 비종교 집단보다는 평균치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종교 집단이 비종교 집단

<표 1-①>

집 단	성 별	평균치
종교집단	a { m	20.45
	f	22.50
	b m · f	21.70
	c { m	20.13
	f	22.65
	d { m	18.52
f	19.64	
비종교집단	e { m	11.15
	f	14.76
	f { m	12.32
	f	12.89
	g m · f	10.73
	h m · f	10.14
i m · f	10.62	
j m	9.99	
	f	10.77

보다 종교에 대해 우호적일 것이라는 당연한 가설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b. 종교 집단 중에서도 불교 집단보다는 천주교 집단이, 천주교 집단보다는 기독교 집단이 더 많은 기독교적 응답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총 40개 문항 중에서 6개 문항이 기독교만을 주장하는 성향이 강한 문항임을 고려해 볼때 종교를 긍정함에는 기독교 집단이나 천주교 집단, 그리고 불교 집단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c. 기독교계 대학의 비종교 집단이 타종교계 대학의 비종교 집단과 비종교계 대학의 비종교 집단보다 평균치가 크게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기독교계 대학의 기독교 교육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d. 그 반면, 천주교계 대학, 불교계대학, 유교계 대학의 비종교 집단과 비종교계 대학의 비종교 집단과의 평균치에는 서로 有意한

差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들 대학에서의 종교 교육은 학생들의 종교적 태도에 별로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문항 자체가 불교적 성격을 띄우고 있었다면 불교계 대학생은 좀더 불교적 경향을, 천주교계 대학생은 좀더 천주교적 경향을 띄울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할 것 같다.

e. 기독교계 대학의 기독교 집단이나 비기독교계 대학의 기독교 집단 사이에는 서로 有意한 差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학교라는 배경 위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이나 그 밖의 장면(field)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이 서로 유사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f. 일반적으로 각 집단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집단에서 좀더 큰 평균치를 보인다. 이로써 남학생 보다 여학생들이 훨씬 더 종교적 성향이 강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② 학과별 비교<표 1-②>

학과별 종교적 태도에는 有意한 差가 없으나 인문계 학과의 학생들이 타계 학생들에 비해 종교적 성향이 강하다는 가설 하에 새로운 연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것 같다.

③ 학년별 비교<표 1-③>

학년별로도 종교적 태도에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1학년을 제외하고 학년이 높아짐에

<표 1-②>		<표 1-③>	
학 과 (계열별)	평균치	학 년	평균치
인문계학과	11.34	1	10.52
사회계학과	10.44		
공업계학과	10.54	2	11.57
이과계학과	10.65		
농업계학과	9.84	3	10.76
간호학과	10.15		
		4	10.32

따라 평균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령층에 따른 종교적 태도를 조사해 보는 것도 재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다.

2.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문항들의 비교

◎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만이 참 종교의 의미를 갖는다. <표 2>

<표 2>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44	34	16	3	3
		f	29	27	19	15	11
	b	m·f	32	32	5	20	11
		m	10	21	10	14	45
	c	f	31	16	20	21	12
		m	27	5	6	20	42
	d	f	8	16	12	45	19
		m	2	3	6	29	60
	e	f	6	6	8	21	59
		f	m	2	18	36	22
g	f		2	7	17	42	32
	h	m·f	1	2	12	33	52
i		m·f	2	2	16	22	58
	j	m·f	2	5	28	17	48
		m	3	2	12	24	35
		f	5	2	20	29	44
학 과		인문계	m	2	4	20	32
	사회계	m	4	2	8	32	54
	공업계	m	2	9	15	25	49
	이과계	m	2	3	10	30	55
	농업계	m	1	5	16	21	57
	간호과	f	2	1	12	17	68
학 년	1	m	1	4	12	36	47
	2	m	2	7	17	18	56
	3	m	2	3	22	26	47
	4	m	2	2	20	30	46

a. 기독교계 대학과 천주교계 대학의 기독교 집단에서는 55%—80%의 범위에 이르는 학생들이 기독교에서만 참 종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동의한다.

b. 그러나 비종교계 대학의 기독교생 집단에서는 여학생들은 비교적 기독교에서 참 종교의

의미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47%) 남학생들은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참 종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고집하지는 않는다(60% 가량). 대체로 이들은 기독교 이외의 종교도 종교로서 인정한다고 볼 수 있겠다.

c. 천주교 집단에서 남학생은 비교적 이 문항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여학생은 온건한 반대 의견을 보여준다. 그런데 기독교 집단에 비해 이들의 반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문항 자체가 기독교만을 고집하는데서 오는 같은 계통의 종교로서의 저항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 아닌 가 추측된다. 만일 이 문항에 기독교 옆에 팔호를 하고 천주교도 함께 포함시켰다면 천주교 집단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호의적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른다.

d. 불교 집단은 물론 비종교 집단에서는 대체로 기독교만이 참 종교의 의미를 갖는다는데에 다수가 반대하는 입장에 선다. 이들 집단중 숭전대학교를 표집 대상으로 한 기독교계 대학내 무종교 집단에서는 다른 무종교 집단에서보다도 반대 의견보다 중간 의견에 좀더 치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숭전대학교의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적인 분위기는 어느 정도 학생들의 기독교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다만 그들이 호의적인 반응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기독교만이 참종교의 의미를 갖는다는데에 대한 일말의 회의적 반응이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e. 학과별 학년별로는 뚜렷한 어떤 경향을 보여 주지 않는다.

◎ 어떤 神的인 統治者가 나타나 기독교 통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

a. 다른 집단은 물론 기독교 집단까지도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가 참 종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동의하는 경향을 보여주면서도 신적 통치자가 주관하는 기독교 통치사회가 이루어 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 그 반응 경향이 치우친다. 이러한 반응은 아마도 신적 통치자가 주관하는 기독교 사회란 일종의 理想(ideal)이라는 사고방식, 또는 문항 자체가 독재적 뉴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재하는 사회와는 背理된다는 사고방식에서 연유한 반응이 아닌가 추측되는 동시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도 여겨진다. 또한 현재까지의 기독교가 주로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측면에서 주로 선교되어 종교가 프레스된 사회적 역군, 정치적 역군이 되어 일선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능동적인 선교방법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소홀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b. 그래도 비교적 기독교 집단과 기독교계 대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반대 입장을 약하게 表出하고 있다.

c.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는 별로 차이있는 반응을 보여 주지 않았으며 학과별 학년별로도 뚜렷한 어떤 경향을 보여주지 않는다.

<표 3>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3	14	30	18	29
		f	9	22	21	26	22
	b	m·f	2	29	30	32	6
		m	3	8	37	24	28
	c	f	6	10	33	27	24
		m	5	10	24	42	19
	d	f	4	9	15	57	15
		m	3	10	19	26	42
	e	f	4	2	22	44	28
		f	m	2	22	34	22
g	f		2	2	27	49	20
	h	m·f	1	8	20	43	28
i		m·f	3	3	11	27	56
	j	m·f	2	9	26	28	35
		m	1	7	14	22	51
		f	2	2	22	44	30
학 과	인 문 계	m	4	10	24	20	42
	사 회 계	m	2	1	8	43	46
	공 업 계	m	2	8	19	21	50
	이 과 계	m	1	3	20	40	36
	농 업 계	m	2	2	13	31	52
	간 호 과	f	1	4	10	30	55
학 년	1	m	2	4	19	31	44
	2	m	2	16	9	33	40
	3	m	2	10	21	31	36
	4	m	3	8	21	23	45

◎ 인간이란 아담과 이브의 후예이다. <표 4>

a. 기독교 집단과 천주교 집단에서는 대체로 인류의 기원을 아담과 이브에 두는데에 동의하고있는 편이다(60%~70% 정도). 그러나 같은 기독교 집단이면서도 비종교계 대학의 남학생 집단의 경우 여학생과 달리 65% 가량의 학생들이 부정적 내지는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

b. 기독교계 대학의 무종교집단에서도 男女性差를 보여준다. 즉, 남학생은 회의적 내지는 부정적 반응으로 兩分되는 경향을 보이는 反面에 여학생은 긍정적 반응과 회의적 반응으로 兩分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마도 이는 기독교교육 과정 중에도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들보다 논리적 증명을 더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것 같다.

c. 불교 및 무종교 집단에서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대체로 부정하는 입장에 선다. 이는

〈표 4〉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33	38	18	4	7
		f	32	34	20	10	4
	b	m · f	25	36	18	2	—
		m	17	18	34	17	14
	c	f	49	25	17	6	3
		m	6	55	33	5	1
	d	f	8	53	27	10	2
		m	3	10	12	11	64
	e	f	—	15	35	29	21
		f	m	7	16	36	18
g	f		3	39	36	15	7
	h	m · f	2	7	24	40	27
i		m · f	—	7	29	19	45
	j	m · f	5	3	42	20	30
k		m	3	4	20	24	49
	l	f	5	25	37	20	13
학 과		인 문 계	m	6	4	36	26
	사 회 계	m	—	8	16	38	38
	공 업 계	m	—	6	40	21	33
	이 과 계	m	—	6	10	42	42
	농 업 계	m	—	8	12	16	64
	간 호 과	f	—	10	40	27	23
학 년	1	m	—	2	26	24	48
	2	m	4	10	26	24	36
	3	m	—	4	33	25	28
	4	m	4	14	21	23	38

기본적인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추측 된다.

d. 학과별, 학년별로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인간이 신에 의해 흠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의 말씀은 진화론보다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표 5〉

a. 기독교 집단이나 천주교 집단이나 이 문항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찬·반 그리고 중간 입장으로 3분되는 경향을 보이며, 전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류의 기원을 아담과 이브에 두고 있다는데 동의한 학생들 중에서도 꽤 많은 학생이 진화론보다는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전향의 반응처럼 이 문항에 대한 반응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좀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

<표 5>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8	29	27	9	27
		f	8	20	24	29	19
	b	m·f	12	20	24	18	26
		m	10	39	20	17	14
	c	f	12	12	17	22	37
		m	6	20	35	26	13
	d	f	4	29	31	30	6
		m	78	15	4	1	2
	e	f	28	39	30	2	2
		f	m	29	37	18	14
g	f		12	57	12	14	5
	h	m·f	26	46	19	8	1
i		m·f	38	45	9	7	6
	j	m·f	34	31	15	3	17
		m	48	34	14	3	1
		f	20	48	20	10	2
학 과		인문계	m	37	40	15	6
	사회계	m	32	36	21	9	2
	공업계	m	47	37	13	2	1
	이화계	m	36	36	20	4	4
	농업계	m	33	45	9	10	3
	간호과	f	42	43	5	6	4
학 년	1	m	38	43	11	6	2
	2	m	38	27	25	8	2
	3	m	36	45	13	2	4
	4	m	38	43	7	9	3

c. 같은 비종교 집단이라도 기독교 대학의 비종교 집단이 기독교 교육의 영향으로 비기독교 대학의 비종교 집단보다는 성경 말씀에 동의할 것이라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有意한 差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d. 학과별, 학년별 경향은 없다.

◎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과는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다른 神人이다. <표 6>

a. 기독교와 천주교 집단에서는 대체로 예수를 神人으로서 인정하는 편이나 비종교계 대학의 남학생 기독교 집단에서는 찬반의 비율이 비슷하다.

b. 기독교 대학의 무종교 집단은 중간 입장이 좀더 강한 경향을 띤다. 이러한 반응은 예수를 역사상 존재했던 한 인물로 설정하고 있던 비기독교적 태도와 하나님이 독생자로서 존재

<표 6>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48	18	8	13	13
		f	32	37	4	19	8
	b	m·f	25	26	25	13	11
		c	m	23	25	7	14
	f		30	31	14	13	12
	d	m	37	27	17	13	6
		f	8	44	23	20	5
	e	m	16	17	15	22	30
		f	7	44	14	15	20
	비 종 교 군	f	m	2	25	41	25
f			12	22	33	24	9
g		m·f	4	51	21	20	4
		h	m·f	3	16	21	14
i			m·f	11	22	20	26
		j	m	6	24	16	30
f	6		37	20	29	8	
학 과	인문계 사회계 공업계 이화계 농업계 간호과	m	8	31	15	20	26
		m	8	26	17	23	26
		m	3	21	25	21	30
		m	4	20	10	42	24
		m	6	10	20	16	48
		f	10	32	18	36	4
학 년	1 2 3 4	m	2	16	28	23	31
		m	4	28	18	30	20
		m	4	20	21	23	32
		m	9	20	22	27	22

한다는 기독교 교육 영향과의 二元性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c. 불교 집단과 비종교 집단에서는 예수가 神人的 性格을 띄우고 있다는 데에 反對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들 집단 중에서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예수를 神人的 存在로 받아 들이고 있는데 이는 예수의 위대한 행적을 神人的 존재와 연결시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d.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좀더 好意的 反應을 보인다.

e. 학과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호학과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년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수의 부활이란 있을 수 없는 사실이다. <표 7>

a. 기독교 집단, 천주교 집단에서는 52%—72% 범위 내에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다.

<표 7>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8	3	28	18	43
		f	2	2	28	22	46
	b	m · f	5	8	11	32	44
		m	7	8	33	18	34
	c	f	3	3	17	29	48
		m	2	3	14	42	39
	d	f	4	5	19	52	20
		m	42	14	25	3	16
	e	f	2	20	72	6	—
		f	m	23	14	47	5
g	f		5	17	56	17	5
	h	m · f	18	14	42	22	4
i		m · f	24	19	42	11	4
	j	m · f	24	24	36	9	7
		m	28	27	33	4	8
		f	12	15	48	20	5
학 과		인문계	m	26	20	2	8
	사회계	m	16	29	33	17	5
	공업계	m	22	22	39	12	5
	이화계	m	30	16	30	22	2
	농업계	m	41	13	33	9	4
	간호과	f	10	13	52	19	6
학 년	1	m	35	17	30	14	4
	2	m	14	19	40	17	10
	3	m	20	35	31	6	8
	4	m	29	25	33	9	4

b. 불교 집단에서 남학생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쪽에 기울고 여학생은 중간 입장이 지배적이다.

c. 기독교 대학, 천주교 대학의 비종교 집단에서는 다른 기독교적 문항의 반응과 거의 비슷한 즉 긍정과 부정의 중간 입장이 약간 강하다.

d. 무종교 집단에서는 대체로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입장과 중간 입장으로 兩分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이 무종교 집단의 반응은 앞에서 살펴본 5개 문항에 비해 약간은 완화된 반응을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볼때 예수 부활은 확실히 기독교사상 의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으며 기독교 선교에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e.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예수 부활을 좀더 인정하고 있으며 학과별 반응차를 보아도 여학

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호학과가 좀더 완화된 반응을 보인다.

f 학년별로는 뚜렷한 경향이 없다.

이상과 같이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6개 문항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 가설대로 ① 기독교 집단은 호의적 반응을 ② 비기독교 집단은 부정적 반응을 ③ 기독교 대학의 비종교 집단은 중간 반응을 ④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좀더 기독교적인 반응을 보인다. 기독교 대학의 비종교 집단이 기독교 집단과 비기독교 집단의 중간적 입장을 표시해준 것은 어느정도 기독교 교육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 그 반면 기독교 집단의 경우 기독교 대학이전 비기독교 대학이전 반응차가 의미없는 것으로 보아 기독교 선교는 기독교 학교라는 배경 이외의 장면(field)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3. 종교 일반에 관한 문항들의 비교

◎ 사람들은 대개 종교 없이도 그대로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표 8>

a. 불교 집단, 무종교 집단, 기독교 대학의 무종교 집단까지도 종교없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b. 기독교, 천주교 집단에서 남학생은 중간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기독교는 종교의 역할을 중시하는 반면 천주교는 종교없는 생활을 동의하는 현에 기운다. 같은 여학생

<표 8>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3	18	52	19	8
		f	2	30	28	34	6
	b	m · f	—	38	42	16	4
	c	m	—	24	48	18	10
		f	—	21	36	31	12
	d	m	—	27	41	27	5
		f	5	43	36	10	6
	e	m	23	51	23	1	2
		f	5	40	34	20	1
	비 종 교 군	f	m	18	46	13	16
f			15	42	32	9	2
g		m · f	25	53	18	4	—
h		m · f	31	53	11	6	—
i		m · f	26	38	17	15	4
j		m	81	41	22	3	3
	f	20	55	23	1	1	

학	과	인문계	m	30	48	18	3	1
		사회계	m	37	44	15	2	2
		공업계	m	28	41	15	13	3
		이화계	m	36	48	4	6	6
		농업계	m	41	41	13	4	1
		간호과	f	21	54	23	2	—
학	년	1	m	30	48	15	5	2
		2	m	30	49	9	8	4
		3	m	30	44	19	7	—
		4	m	28	48	15	7	2

群에서의 이러한 反應差는 宗教儀式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c. 학과별, 학년별로는 아무런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 종교는 현대 문명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방패이다. <표 9>

<표 9>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50	18	18	10	4
		f	32	29	22	11	6
	b	m·f	30	40	12	13	5
		c	m	31	38	6	8
	f		36	40	9	13	2
	d	m	39	48	4	7	2
		f	24	49	19	5	3
	e	m	22	29	22	17	10
		f	36	37	2	2	4
	비 종 교 군	f	m	7	37	28	24
f			7	27	35	24	7
g		m·f	4	24	36	21	15
		h	m·f	1	24	62	19
i			m·f	5	15	34	23
		6		20	33	14	27
학 과	인문계	m	8	30	29	13	20
		f	3	25	22	37	13
	사회계	m	2	22	26	29	21
		f	7	31	22	18	22
	공업계	m	12	5	23	36	24
		f	4	24	31	25	16
	이화계	m	5	25	20	27	23
		f	5	25	20	27	23

학 년	1	m	4	26	27	27	16
	2	m	6	25	35	19	15
	3	m	6	30	30	11	23
	4	m	6	22	27	18	27

a. 기독교, 천주교, 불교등 각각의 종교 집단이 모두 51%~87%의 범위에서 종교가 현대 문명의 멸망을 막는 최후의 방패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b. 종교계 대학의 무종교 집단에서 기독교계 남학생(여기서는 숭전대)만이 다소간 이 문항에 동의하는데 기울고 다른 집단은 중간 입장에 더 기운다.

c. 비종교 대학의 비종교 집단에서는 현대 문명의 멸망을 막는 것을 종교에 한정시키지 않는 것 같다.

d. 비종교 대학의 비종교 집단보다는 종교계 대학의 비종교 집단이 좀더 완화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종교계 대학에서 느끼는 종교적 분위기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

e. 전항에 비하여 이 문항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이 좀더 好意的이다. 이는 집단에서도 개인생활과 종교와의 관련성 보다는 현대 문명과 종교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기 때문인 것 같다. 또 한 측면에서 볼때 종교와의 관련성을 떠나서라도 현재 한국의 대학생들이 현대 문명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라는 심층적 분석도 가능한 것 같다.

f. 학과별, 학년별 차이는 없다.

◎ 종교는 국민 생활에 좀더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표 10>

a. 종교 집단은 물론이고 종교계 대학의 비종교 집단에서도 종교가 국민 생활에 좀더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현재 종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결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표 10>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75	18	3	2	2
		f	41	25	24	8	1
	b	m · f	17	58	5	18	2
		c	m	31	49	13	7
	f		45	46	8	1	—
	d	m	48	34	12	6	—
		f	20	56	19	5	—
	e	m	20	55	15	10	—
		f	8	59	27	7	—

비종교군	f	{ m	29	20	33	18	—
		{ f	10	32	38	17	3
	g	m · f	13	47	24	14	2
	h	m · f	4	43	32	15	6
	i	m · f	11	15	52	11	11
	j	{ m	11	25	38	19	7
		{ f	6	30	48	8	8
학 과	인문계	m	12	35	43	6	4
	사회계	m	10	38	32	15	5
	공업계	m	15	26	42	13	4
	이과계	m	12	41	10	19	18
	농업계	m	4	31	23	21	21
	간호과	f	15	31	34	10	10
학 년	1	m	15	41	29	11	4
	2	m	15	29	28	24	4
	3	m	12	38	36	7	7
	4	m	6	30	32	22	10

b. 유교계 대학의 비종교 집단, 비종교계 대학의 비종교 집단에서도 종교가 국민 생활에 좀더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로 미루어 보아도 종교가 국민 생활의 이익과 향상에 이바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은 모두가 바라는 당연한 일인것 같다.

c. 남녀, 학과별, 학년별 차이는 없다.

◎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옳고도 정당한 일이다. <표 11>

a.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생들만이 학교에서의 의무적 종교 교육에 찬, 반, 중간 의견으로 3분되는 경향을 보이며 기타 종교 집단에서는 좀더 강한 반대 의견에 기울고 무종교 집단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반대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b. 전체적으로 볼때, 학교에서의 의무적 종교 교육에 찬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이 반응 결과는 종교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는 학생들의 사고방식의 표현인 것 같다. 혹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볼때, 어쩌면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이 이러한 응답 경향을 보여주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한 例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16.5%에 불과한 연구 결과⁽³⁾도 있다. 어쨌든 종교 집단의 경우 종교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학교에서의 의무적 종교 교육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인 것은 좀더 숙고해 볼만한 결과인것 같다.

c. 학과별로 살펴볼때 인문계만이 타계 학과의 학생들보다 좀더 수긍적이고 학년별로는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인다.

(3) 한국 기독교대학 교육 내용의 기능과 성격에 관한 종합적 연구 : 숭대, 서울女大, 계명대, 공동연구, 1973. p.98.

〈표 11〉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13	23	28	24	12
		f	11	25	30	25	9
	b	m·f	10	14	30	36	20
		m	10	14	27	28	21
	c	f	12	30	19	30	9
		m	2	10	27	43	18
	d	f	2	10	17	59	12
		m	10	10	18	27	35
	e	f	5	10	20	29	36
		f	m	9	16	22	42
g	f		3	10	10	57	20
	h	m·f	1	5	12	33	49
i		m·f	1	7	21	40	31
	j	m·f	4	15	9	40	32
		m	1	3	9	29	58
		f	2	3	20	43	32
학 과		인문계	m	4	6	24	29
	사회계	m	2	2	10	43	43
	공업계	m	2	10	11	35	42
	이과계	m	6	6	5	30	53
	농업계	m	2	7	9	37	45
	간호과	f	—	6	9	31	54
학 년	1	m	2	8	10	45	35
	2	m	2	10	17	28	43
	3	m	4	6	12	35	43
	4	m	4	5	13	27	51

◎ 종교가 전쟁을 불러 일으켰듯이 종교가 반드시 평화를 유지시켜 준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표12〉

a. 기독교, 천주교 집단에선 종교가 평화를 유지시켜 주는가에 대해 찬, 반, 중간 입장으로 3분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불교, 무종교 집단에서는 55%~78% 범위에 이르는 학생들이 종교가 평화를 유지시켜 준다는 데에 회의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b.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 집단의 경우 종교가 현대문명의 멸망을 막는 최후의 방패라는 의견에는 호의적 반응 경향을 보여 주었으면서도 이 문항에 대해서는 다분히 회의적 반응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종교가 평화를 유지시켜 주기를 바라는 소망에 비해 실제로 종교가 평화를 안겨다 주리라는 데에는 크게 기대하지 못함을 나타내주는 반응이 아닌가 생각 된다. 이러한 반응 결과는 실제 그동안의 종교 역사가 세계 평화에 크게 공헌하지 못했기

<표 12>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18	19	27	14	22
		f	9	30	28	20	13
	b	m · f	12	23	34	16	5
	c	m	3	40	16	24	17
		f	6	19	29	35	11
	d	m	12	44	18	20	6
		f	8	30	23	35	4
	e	m	29	42	22	4	3
		f	10	44	27	17	2
	비 종 교 군	f	m	11	47	11	22
f			19	37	31	10	3
g		m · f	21	57	12	9	1
h		m · f	22	40	26	9	3
i		m · f	32	44	20	3	1
j		m	32	38	21	6	3
	f	29	41	20	8	2	
학 과	인 문 계	m	26	42	22	8	2
	사 회 계	m	32	42	13	10	3
	공 업 계	m	30	37	15	16	2
	이 과 계	m	10	48	18	12	12
	농 업 계	m	25	37	21	9	8
간 호 과	f	45	48	11	4	2	
학 년	1	m	28	51	9	6	6
	2	m	22	32	23	19	4
	3	m	30	41	16	10	3
	4	m	28	40	15	11	6

때문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c. 학과별, 학년별로는 아무런 경향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상의 5개 문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문항에 대해서 저항을 표시한 집단에서도 종교의 가치나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종교에 대해 호의적 반응을 보여주면서도 종교가 강요되는 것은 기피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종교적 윤리에 관한 문항들의 비교

◎ 종교의 가르침은 삶의 길잡이이며 생활의 지침이다. <표 13>

a. 종교 집단은 대체로 종교의 가르침이 생활의 지표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동의한다. (59%

<표 13>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54	34	12	—	—
		f	42	37	13	8	—
	b	m·f	12	69	19	—	—
		m	41	39	13	7	—
	c	f	51	40	9	—	—
		m	39	49	12	—	—
	d	f	20	68	7	5	—
		m	15	44	28	13	—
	e	f	15	72	10	3	—
		m	5	31	43	16	5
비 종 교 군	f	f	2	39	40	17	2
		m·f	10	20	56	6	8
	g	m·f	1	26	50	16	7
		m·f	9	28	37	15	11
	h	m	7	22	39	16	16
		f	2	29	44	13	12
학 과	인 문 계	m	12	41	27	10	10
		m	4	40	32	18	6
	사 회 계	m	10	32	26	16	16
		m	4	41	18	13	24
	공 업 계	m	10	10	40	28	12
		f	5	30	41	14	10
학 년	1	m	6	35	33	20	6
	2	m	8	39	29	12	12
	3	m	8	40	27	13	12
	4	m	5	30	41	14	10

~91%) 이는 종교의 가르침이 종교인의 행동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해주는데 충분한 결과로 여겨진다.

b. 무종교 집단은 대체로 중간 입장에 기운다(37%~56%). 종교집단이 종교의 가르침을 행동 지표로 삼고 노력하는 반면 이들은 종교의 가르침을 생활 지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을 선택할때는 종교적 가르침 이외의 여러 다른 윤리적 측면에서 선택하는 것 같다.

c. 학과별로 살펴 볼때 대체로 호의적 반응을 보이나 농업계 학과와 간호학과에서는 좀더 중간 입장에 기운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어떠한 원인이 있기보다는 우연한 차이로 생각된다.

d. 학년별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 종교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 가부를 묻지 말고 믿어야 한다. <표 14>

<표 14>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3	8	23	35	31
		f	8	17	18	35	22
	b	m·f	18	5	20	31	26
	c	m	8	10	10	31	41
		f	15	15	13	40	17
	d	m	13	14	18	19	36
		f	9	15	23	37	16
	e	m	3	6	12	20	59
		f	2	5	28	22	43
	비 종 교 군	f	m	9	11	18	35
f			2	7	12	31	48
g		m·f	6	2	10	32	50
h		m·f	1	2	11	26	60
i		m·f	7	7	13	26	47
j		m	4	4	8	24	60
	f	2	2	6	32	58	
학 과	인 문 계	m	10	4	16	28	42
	사 회 계	m	2	5	9	33	51
	공 업 계	m	4	11	5	16	64
	이 과 계	m	4	6	5	31	54
	농 업 계	m	1	2	10	29	58
간 호 과	f	2	3	5	20	70	
학 년	1	m	2	2	9	35	52
	2	m	8	8	13	25	46
	3	m	2	7	2	30	59
	4	m	6	4	14	25	51

a. 종교 집단, 무종교 집단이 모두 종교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57%~90%). 이러한 반응은 대체로 모든 학생들이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함에 있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b. 학과별, 학년별 차이는 없다.

◎ 죄악이란 神(하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표 15>

a. 기독교, 천주교, 불교등 각각의 종교 집단에서는 모두 죄악이 神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41%~88%). 아마도 종교 집단에서는 죄악이라는 개념을 종교의

〈표 15〉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42	32	13	10	3
		f	32	32	14	13	9
	b	m • f	17	65	11	5	2
	c	m	34	45	6	11	4
		f	21	50	14	8	7
	d	m	62	26	6	3	3
		f	24	37	15	20	4
	e	m	13	28	29	20	10
		f	4	40	28	15	13
	비 종 교 군	f	m	2	37	31	23
f			5	39	27	24	5
g		m • f	7	44	25	20	4
h		m • f	3	21	45	24	7
i		m • f	7	20	24	32	17
j		m	6	22	31	25	16
	f	6	25	22	41	6	
학 과	인 문 계	m	8	12	93	22	19
	사 회 계	m	4	30	26	30	10
	공 업 계	m	4	26	29	29	12
	이 과 계	m	10	31	29	18	12
	농 업 계	m	5	20	45	21	9
	간 호 과	f	10	25	23	37	5
학 년	1	m	8	18	36	31	7
	2	m	4	14	30	18	14
	3	m	8	26	23	26	17
	4	m	12	25	35	24	10

가르침과 결부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여준 것으로 추측된다.

b. 비종교 집단 중에서 기독교 대학과 천주교계 대학에서는 찬성하는 편에 기울고 불교계 대학에서는 중간 입장에, 유교계와 비종교계 대학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에 기운다. 기독교 대학과 천주교 대학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종교적 분위기의 영향 때문에 찬의에 기운 것 같으나 불교계 대학의 경우 중간 입장에 기운 것은 좀더 연구해 볼만한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유교계 대학과 비종교계 대학의 경우에는 다같이 반의에 기우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일반적 도덕 기준이 李朝時代에 활발히 論해졌던 유림사상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c. 학과별, 학년별 차이는 없다.

◎ 종교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은 자가 불행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표 16>

<표 16>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8	13	38	18	33
		f	7	25	24	33	11
	b	m·f	6	7	30	46	11
		c	m	13	17	23	23
	f		9	15	36	19	21
	d	m	4	10	12	26	48
		f	4	12	35	41	8
	e	m	2	2	18	17	61
		f	5	15	27	25	28
	비 종 교 군	f	m	7	20	22	33
f			2	2	15	52	29
g		m·f	4	4	6	56	30
		h	m·f	2	3	11	35
i			m·f	5	7	17	28
		j	m	2	2	9	27
f	2		3	6	50	39	
학 과	인 문 계	m	5	8	13	25	49
	사 회 계	m	2	2	10	42	44
	공 업 계	m	1	5	14	29	51
	이 과 계	m	3	7	24	24	42
	농 업 계	m	1	4	13	37	45
	간 호 과	f	8	15	17	40	20
학 년	1	m	2	4	17	43	34
	2	m	2	8	21	23	46
	3	m	1	3	14	35	47
	4	m	2	10	7	41	40

a. 종교 집단과 무종교 집단이 모두 이 문항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학생들(40%—89%)이 종교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아서 불행을 당하는 것엔 동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b.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 집단의 경우 종교의 가르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또한 죄악이란 궁극적으로 종교의 가르침에 위배 되는 것이라는 완고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 문항에 대해서는 훨씬 누그러진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비종교인, 종교인의 구별 없이 심층 속에 본연적인 Humanism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c. 학과별, 학년별로는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5) 신앙심에 이르게 되는 동기에 관한 문항들의 비교

◎ 인간은 종교적 경험을 필요로 한다. <표 17>

a. 종교집단, 무종교 집단이 모두 인간이 종교적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44%—94%) 이 문항에 대한 호의적 반응은 앞에서 살펴본 종교 일반에 대한 호의적 반응과 매우 부합되는 반응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반응들로 미루어 볼때 어떠한 종교이건 비종교인에게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b. 학과별, 학년별 반응차는 없다.

<표 17>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D	U	SD
종 교 군	a	m	49	42	7	1	1
		f	45	43	8	2	2
	b	m·f	31	57	5	6	1
		c	m	41	32	23	2
	f		39	49	8	2	2
	d	m	46	48	2	2	2
		f	28	60	7	3	2
	e	m	28	43	22	4	3
		f	8	85	4	2	1
	비 종 교 군	f	m	9	39	29	16
f			19	29	43	7	2
g		m·f	10	46	37	4	3
		h	m·f	4	40	38	14
i			m·f	11	43	30	3
		j	m	6	47	27	12
f	17		46	27	8	2	
학 과	인 문 계	m	8	37	41	8	6
		f	5	25	50	12	8
	사 회 계	m	6	40	38	5	11
		f	12	31	41	4	12
	공 업 계	m	8	21	43	16	12
		f	12	40	31	12	5
학 년	1	m	13	37	38	6	6
	2	m	6	24	48	11	11
	3	m	6	38	39	11	6
	4	m	6	30	45	12	7

◎ 신앙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일부이다. <표 18>

a. 종교집단, 무종교집단이 모두 신앙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일부라는 의견에 호의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52%~91%)

b.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은 종교없어도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 반응을 보여주지 않은데 비해 이 문항에 대해서 호의적 반응을 보인 것은 썩 주목할만 하다. 이 두 문항의 반응 결과가 서로 비교할만한 반응 결과를 보인 것은 아마도 신앙과 종교의 개념적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신앙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종교를 특수한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데서 온 반응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표 18>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56	35	9	—	—
		f	44	40	8	4	4
	b	m·f	51	25	12	7	5
	c	m	41	45	3	4	7
		f	58	24	8	7	3
	d	m	38	43	2	10	7
		f	28	68	4	—	—
	e	m	16	48	22	4	6
		f	40	36	14	—	—
	비 종 교 군	f	m	23	39	20	14
f			22	54	17	5	2
g		m·f	15	45	25	12	3
h		m·f	7	48	38	3	4
i		m·f	13	39	26	17	5
j		m	16	42	28	8	6
	f	13	48	29	8	2	
학 과	인 문 계	m	18	34	35	9	4
		m	14	35	37	10	4
	사 회 계	m	20	36	25	17	2
		m	18	30	30	18	4
	공 업 계	m	15	41	23	9	12
		f	15	44	15	5	1
학 년	1	m	13	42	36	5	4
	2	m	22	28	28	16	6
	3	m	18	51	18	11	2
	4	m	17	39	26	12	6

c. 학과별, 학년별 반응차는 없다.

◎ 신앙은 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 <표 19>

a. 신앙이 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의 해결에 도움된다는 의견 역시 많은 학생들이 동의하는 반응을 보여준다. (60%~91%)

b. 이러한 반응결과는 한 개인이 심리적 질환을 앓고 있을때 신앙이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는 한편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각 학교의 상담실에서도 신앙의 비중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 해 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c. 학과별, 학년별 차이는 없다.

<표 19>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61	30	7	1	1
		f	25	58	11	9	7
	b	m·f	25	64	10	1	—
	c	m	34	56	3	4	3
		f	40	51	3	3	6
	d	m	60	29	6	3	2
		f	12	73	15	—	—
	e	m	18	50	16	6	10
		f	22	70	6	1	1
	비 종 교 군	f	m	9	57	18	5
f			19	56	22	2	1
g		m·f	21	65	10	2	2
h		m·f	11	63	19	6	1
i		m·f	17	43	22	13	5
j		m	22	48	24	5	1
	f	10	66	18	4	2	
학 과	인 문 계	m	18	56	22	4	—
	사 회 계	m	15	57	22	4	2
	공 업 계	m	20	49	24	3	4
	이 과 계	m	24	58	12	2	4
	농 업 계	m	4	57	25	9	5
	간 호 과	f	15	57	23	5	—
학 년	1	m	12	62	18	4	4
	2	m	17	52	21	4	6
	3	m	16	54	23	6	1
	4	m	16	58	22	2	2

◎ 인간의 고뇌는 종교를 통해서 극복하기가 쉬워진다. <표 20>

a. 이 문항 역시 전항과 비슷한 성격의 문항이어서 그 반응도 대체로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간의 고뇌는 종교를 통해 극복하기 쉬워진다는 의견에 찬성하고 있다.

b. 학과별, 학년별 반응차도 없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4개의 문항은 표현의 차이는 있어도 실제로는 같은 내용을 갖는 문항들이다. 위의 4개 문항은 모두 비종교 집단의 학생들이 종교를 가질만한 동기(motive)가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삽입된 문항인데 각각의 문항에 대한 반응이 모두 적극적인 호의 반응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반응결과는 Jung⁽⁴⁾이 설명한 대로 인간은 본연적으로

<표 20>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54	38	8	—	—
		f	39	38	13	7	3
	b	m·f	25	63	6	6	—
	c	m	28	51	7	8	6
		f	42	50	3	5	—
	d	m	54	33	13	—	—
		f	20	65	11	4	—
	e	m	23	39	18	10	10
		f	35	52	13	—	—
	비 종 교 군	f	m	2	51	33	9
f			5	70	20	2	3
g		m·f	15	40	33	10	2
h		m·f	12	42	29	14	3
i		m·f	5	43	36	5	11
j		m	11	52	27	6	4
	f	12	54	15	17	2	
학 과	인문계	m	14	52	20	8	6
	사회계	m	8	40	34	14	4
	공업계	m	8	42	25	19	6
	이과계	m	24	30	36	6	4
	농업계	m	13	45	33	8	1
	간호과	f	18	42	10	30	—
학 년	1	m	15	51	28	5	1
	2	m	14	41	31	10	4
	3	m	11	53	22	12	2
	4	m	8	38	26	18	10

(4) Frieda, Fordham: An Introduction to Jung's psychology. CH4. "Religion and the Individuation process".

다른 본능과 같이 종교적인 기능(The natural religious function)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 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6) 神의 이미지에 관한 문항들의 비교

◎ 神을 바라보는 것은 산 정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서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보일 수가 있다. 따라서 기독교와 그외의 종교나 모두 같은 神을 섬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1>

a. 기독교 대학, 천주교 대학의 기독교 학생들은 이 문항에 대한 찬반의 비율이 비슷한 편이나 다소간 반대하는 의견에 기운다. (39%~46%)

b. 그외의 집단에서는 45%~75%의 범위에 이르는 학생들이 모든 종교가 궁극에는 같은 신

<표 21>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3	28	23	18	28
		f	10	20	31	19	20
	b	m·f	19	20	5	25	21
		m	20	27	26	17	10
	c	f	25	22	14	15	24
		m	35	20	25	14	6
	d	f	12	64	7	10	7
		m	24	27	19	10	20
	e	f	30	29	20	13	8
		f	m	18	29	40	11
g	f		22	41	25	10	2
	h	m·f	15	50	21	8	6
i		m·f	16	34	29	15	6
	j	m·f	26	38	22	5	9
		m	22	53	11	3	11
		f	32	40	20	6	2
학 년	인문계	m	12	38	31	9	10
		m	14	39	34	9	4
	사회계	m	10	45	31	8	6
		m	23	25	30	4	18
	공업계	m	40	33	11	12	4
		f	35	41	14	6	4
학 과	1	m	29	31	21	14	5
	2	m	10	45	19	10	16
	3	m	16	45	30	5	4
	4	m	28	46	16	3	7

을 섬긴다는데에 동의하고 있다.

c. 같은 계통의 종교이면서도 천주교는 찬성하는 편에, 기독교는 반대하는 편에 기우는 반응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또한 같은 기독교생이면서도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생은 반대하는 입장을, 비종교 대학의 기독교생은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좀더 고찰해 볼만한 결과라 여겨진다.

d. 대체로 반대의견을 취한 기독교생들은 神을 성경에서 설명하는 유일한 하나님만으로 완고히 고집하기 때문인 것 같고 찬성하는 입장을 취한 학생들은 이 문항에 나타난 신의 개념이 다분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자로서의 神, 창조주로서의 神 다시 말해 기독교적 하나님의 뉴앙스를 다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인것 같다. 따라서 반응의 차이는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같은 반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우주는 神이 창조하셨다<표 22>

a. 기독교, 천주교 집단은 우주는 神이 창조하였다는 의견에 54%~82%의 학생이 동의한다.

<표 22>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53	14	22	8	3
		f	49	17	24	7	3
	b	m·f	45	37	11	6	1
		c	m	31	32	16	11
	f		46	24	24	3	3
	d	m	33	27	35	3	2
		f	32	22	30	15	1
	e	m	—	—	43	33	24
		f	—	—	43	29	28
	비 종 교 군	f	m	2	6	34	25
f			7	27	37	17	12
g		m·f	4	15	42	15	24
		h	m·f	—	3	32	24
i			m·f	9	7	32	26
		j	m	4	2	28	20
f	6		15	51	23	5	
학 과	인 문 계	m	10	10	26	16	38
		m	2	3	31	34	30
	사 회 계	m	3	7	29	23	38
		m	4	6	24	24	42
	공 업 계	m	2	3	25	29	41
		f	5	5	52	35	3

학 년	1	m	4	4	25	26	41
	2	m	2	12	27	19	40
	3	m	6	8	31	29	26
	4	m	2	8	28	24	38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기록을 아무 회의 없이 받아 들이는 것 같다.

b. 그러나 불교 집단, 무종교 집단에서는 모호한 입장, 반대 입장으로 兩分되거나 또는 반대 의견에 좀더 치우친다. 아마도 이러한 반응은 우주의 生成을 천문학적인 지식의 범위 내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때문에 나타난 반응 같다. 비종교 집단에게는 神과 우주 창조에 관한 설명도 이 반응결과로 미루어 보아 쉬운것 같지 않게 여겨진다.

c. 학과별, 학년별로는 차이 없다.

◎ 神은 모든 人間을 똑같이 사랑한다<표 23>

a. 종교집단은 대체로 神이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한다는데 동의 하고 있다. (56%~87%)

<표 23>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54	33	13	—	—
		f	27	28	22	20	3
	b	m·f	12	57	5	20	6
		c	m	38	22	23	10
	f		55	9	20	16	—
	d	m	62	19	6	13	—
		f	16	46	26	12	—
	e	m	26	33	23	9	9
		f	22	38	28	6	6
	비 종 교 군	f	m	7	25	48	11
f			12	19	37	25	7
g		m·f	9	16	48	15	12
		h	m·f	7	21	55	6
i			m·f	11	19	44	11
		j	m	12	15	67	14
f	15		17	36	20	12	
학 과	인 문 계	m	10	12	43	11	24
	사 회 계	m	6	20	53	10	11
	공 업 계	m	10	12	53	8	17
	이 파 계	m	10	19	23	30	18
	농 업 계	m	11	25	47	8	9
	간 호 과	f	15	15	40	21	9

학 년	1	m	10	15	53	11	11
	2	m	14	15	37	22	12
	3	m	8	19	51	6	16
	4	m	12	30	47	7	4

b. 비종교 집단의 경우 단호한 反對 의견은 적고 대체로 중간 입장에 치우친다.

c. 학과별, 학년별 차이는 없다.

◎ 인간의 모든 어려움은 神이 자기의 정하신 뜻에 의해 내려진 시험일 것이다<표 24>

a. 기독교와 천주교 집단에서는 인간이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시험일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51%~68%).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시험이라 보고 이것은 또한

<표 24>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27	28	17	14	14
		f	20	46	10	13	11
	b	m·f	6	45	31	18	—
	c	m	21	31	19	22	7
		f	34	27	23	16	—
	d	m	26	42	13	19	—
		f	24	37	15	17	7
	e	m	2	14	13	29	42
		f	2	6	27	29	36
	비 종 교 군	f	m	2	20	18	58
f			7	24	35	27	7
g		m·f	7	15	14	49	15
h		m·f	3	9	24	27	37
i		m·f	2	15	35	26	22
j		m	1	3	11	38	38
	f	8	15	25	39	13	
학 과	인문계	m	10	8	19	30	33
	사회계	m	2	12	18	44	24
	공업계	m	3	17	14	36	30
	이과계	m	6	30	4	25	35
	농업계	m	4	13	17	33	33
	간호과	f	10	20	22	33	15
학 년	1	m	9	9	20	42	20
	2	m	2	19	11	34	34
	3	m	4	10	21	35	30
	4	m	4	10	16	41	29

하나님과의 교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b. 불교, 비종교 집단에서는 대체로 반대 의견에 치우친다. (34%~76%)

c. 학과별, 학년별로는 아무런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 인류의 역사는 그동안 神의 뜻대로 흘러 왔다. <표 25>

a. 기독교 집단의 경우 찬반의 비율이 비슷하나 좀더 인류 역사가 신의 뜻대로 흘러왔다는 데 동의하는 반면 천주교 집단에선 반대 의견이 좀더 강하다. 이 두집단의 반응 차이는 다시 연구해 볼 만한 일인것 같다.

b. 불교, 비종교 집단의 경우 인류 역사를 神과는 무관한 순전히 人間에 의한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43%~88%)

<표 25>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28	18	18	29	7
		f	20	22	25	27	6
	b	m·f	18	22	31	23	6
		m	18	25	17	21	19
	c	f	24	17	26	24	9
		m	5	20	27	18	30
	d	f	10	6	27	30	27
		m	3	6	3	36	52
	e	f	5	10	42	29	14
		f	m	2	14	25	41
g	f		3	12	32	41	12
	비 종 교 군	m·f	—	10	20	45	25
m·f		—	3	16	35	46	
h	m·f	—	14	19	37	30	
	m	—	1	22	31	46	
i	f	6	25	39	20	10	
	학 과	인 문 계	m	8	10	17	25
사 회 계		m	6	6	18	51	19
공 업 계		m	10	11	15	49	15
이 파 계		m	12	4	11	37	36
농 업 계		m	12	8	12	40	28
학 년	간 호 과	f	5	5	15	32	43
		1	m	5	11	15	43
학 년	2	m	4	18	15	38	25
	3	m	9	12	19	46	14
	4	m	10	10	21	38	21

c. 학과별, 학년별 차이는 없다.

◎ 사람의 죽음은 神의 주관에 의한 것이다<표 26>

a. 기독교, 천주교 집단에서는 인간의 죽음도 신의 뜻으로 해석하는 경향(46%~70%)이 있는데 반해 불교, 비종교 집단에서는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39%~88%). 불교, 비종교 집단의 경우 반대 의견이 강한 경향은 이 문항의 신의 개념을 기독교적인 神으로 받아들인 데서 오는 反意이거나 문항 자체가 너무 운명적이라는 도전의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측된다.

b. 학과, 학년별 반응차는 없다.

<표 26>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28	18	33	18	3
		f	20	41	17	16	6
	b	m·f	12	40	11	32	5
	c	m	21	28	14	17	20
		f	48	22	17	16	6
	d	m	5	50	26	13	6
		f	13	40	19	24	4
	e	m	—	3	15	30	52
		f	—	13	36	15	36
	비 종 교 군	f	m	2	14	13	51
f			7	22	32	29	10
g		m·f	2	10	19	45	24
h		m·f	—	6	18	26	50
i		m·f	4	13	28	20	35
j		m	3	2	7	28	60
	f	6	13	17	47	17	
학 과	인 문 계	m	4	6	21	30	39
		m	2	6	9	39	44
	사 회 계	m	7	3	15	39	36
		m	4	2	2	36	36
	공 업 계	m	5	5	10	40	40
		f	2	6	7	25	60
학 년	1	m	2	2	16	44	36
	2	m	6	12	12	34	36
	3	m	4	2	10	39	45
	4	m	4	6	9	31	50

◎ 사회 부조리 현상은 궁극적으로는 전적으로 神의 mistake(잘못)이다. <표 27>

a. 종교집단, 비종교 집단을 막론하고 사회 부조리현상이 神의 잘못이기 보다는 人間의 잘못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43%~87%). 아마도 기독교, 천주교 집단에서는 사회 부조리를 인간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시험에 인간이 스스로 실패한 것으로 받아들여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같고 불교, 비종교 집단에서는 인간의 일은 어디까지나 신의 일이기 전에 인간의 일이라는 사고 경향에서 나타난 같은 반응 같다.

b. 학과별, 학년별 차이는 없다.

<표 27>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	3	23	46	28
		f	3	7	20	33	37
	b	m·f	5	7	11	52	25
		c	m	—	—	18	34
	f		3	6	11	37	43
	d	m	6	17	2	20	55
		f	—	4	19	73	4
	e	m	6	6	16	22	50
		f	2	2	9	45	42
	비 종 교 군	f	m	5	16	36	29
f			—	12	20	51	17
g		m·f	1	8	13	56	22
		h	m·f	—	4	12	40
i			m·f	3	7	20	40
		j	m	3	2	19	38
f	3		12	18	44	23	
학 과	인 문 계	m	4	7	13	34	42
		m	2	2	16	52	28
	사 회 계	m	4	6	16	42	32
		m	2	8	12	48	30
	농 업 계	m	—	5	13	41	41
간 호 과	f	—	15	10	45	30	
학 년	1	m	4	6	9	47	36
	2	m	—	10	14	42	34
	3	m	4	4	25	42	25
	4	m	4	6	11	43	36

◎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신의 인도에 의해 선출된다. <표 28>

a.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도자의 선출과 신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있다(49%~92%).

<표 28>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12	3	22	30	33
		f	6	13	32	32	17
	b	m • f	12	10	27	33	18
	c	m	4	15	19	32	30
		f	6	6	23	35	30
	d	m	6	7	18	19	50
		f	4	4	32	35	25
	e	m	—	10	3	16	71
		f	—	4	10	29	57
	비 종 교 군	f	m	2	7	20	40
f			—	3	18	30	49
g		m • f	—	1	7	31	61
h		m • f	—	4	7	27	62
i		m • f	—	11	15	32	42
j		m	—	2	9	14	75
	f	—	5	2	44	49	
학 과	인 문 계	m	—	5	17	14	64
	사 회 계	m	—	4	4	28	64
	공 업 계	m	—	6	4	36	54
	이 과 계	m	—	—	4	42	54
	농 업 계	m	—	—	6	41	53
	간 호 과	f	—	—	5	40	55
학 년	1	m	—	2	12	41	45
	2	m	—	8	13	30	49
	3	m	—	3	7	30	59
	4	m	—	2	13	16	69

b. 종교 집단 의 경우 신과 지도자의 선출을 분리시키고 있는 반응 결과로 미루어 보아 무조건 매사를 신에게 귀결시키려 드는 무분별한 종교적 태도보다는 選別力 있는 종교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c. 학과별, 학년별 차이는 없다.

(7) 종교와 관련성이 있는 사회적 태도에 관한 문항들의 비교

◎ 생존경쟁의 패배자는 출세한 사람의 동정이나 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다. <표 29>

a. 종교, 비종교 집단의 구별 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존경쟁의 패배자에게 동정적인 반

<표 29>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3	14	3	37	43
		f	3	6	11	42	38
	b	m·f	6	6	19	45	24
	c	m	5	7	13	34	41
		f	—	2	16	52	30
	d	m	2	4	5	21	68
		f	—	4	11	77	7
	e	m	5	14	5	42	33
		f	—	12	6	44	38
	비 종 교 군	f	m	2	23	22	42
f			—	2	20	59	19
g		m·f	2	6	9	59	24
h		m·f	7	5	9	58	21
i		m·f	5	11	19	41	24
j		m	7	4	21	44	24
	f	2	12	12	44	30	
학 과	인문계	m	6	14	14	36	30
	사회계	m	—	5	25	48	22
	공업계	m	—	6	22	38	34
	이과계	m	—	4	12	36	48
	농업계	m	—	4	12	42	42
간호과	f	—	5	30	50	10	
학 년	1	m	2	6	16	41	35
	2	m	—	6	26	41	27
	3	m	—	6	26	35	33
	4	m	—	6	22	37	35

응을 보인다(65%~89%). 이는 종교 문제 이전에 Humanism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반응을 보여준 것 같다.

- b.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좀더 동정적 반응을 보인다.
- c. 학과, 학년별 차이는 없다.

◎ 약한 자를 돕는 것은 적자생존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표 30>

- a. 이 문항 역시 전항과 같이 종교문제 이전에 Humanism의 차원에서 이해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로 종교, 비종교의 구별없이 弱者에게 동정적인 반응을 보였다(59%~92%).
- b. 학과, 학년별 차이는 없다.

<표 30>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3	3	10	33	51
		f	3	9	15	24	49
	b	m·f	—	6	2	49	43
		m	3	5	3	38	51
	c	f	—	3	10	32	55
		m	12	5	3	20	60
	d	f	—	4	8	70	18
		m	10	7	12	41	30
	e	f	—	14	6	52	28
		f	m	5	20	16	37
g	f		—	2	15	59	24
	h	m·f	2	4	4	58	32
i		m·f	6	9	4	44	37
	j	m·f	5	19	7	43	26
		m	2	2	11	32	53
	f	—	5	10	50	35	
학 과	인문계	m	6	10	6	36	42
	사회계	m	10	2	6	50	32
	공업계	m	2	8	12	46	32
	이과계	m	12	6	4	42	36
	농업계	m	—	9	5	41	45
	간호과	f	—	5	12	48	35
학 년	1	m	4	6	4	49	37
	2	m	6	14	8	37	35
	3	m	4	10	11	47	28
	4	m	4	8	8	34	46

◎ 불치의 병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안락사로서 죽음을 택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표 31>

a. 종교, 비종교군이 모두 안락사 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사고 경향을 보여준다(44%~77%) 이 반응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관심보다 불치의 병에 시달리는 고통에 더 appeal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반응 같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은 병에 시달려 고통받는 생명보다는 안락한 죽음에 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문항에서의 기독교, 천주교 집단의 호의 반응은 앞에서 살펴본 “사람의 죽음은 신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데 대한 호의 반응과 상치된다. 이러한 모순은 “사람의 죽음”이라는 전항의 문항이 관념적인 성질을 내포한 반면 본 문항이 현실감이 강한데서 오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은 또한 종교적 신념이 현실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또다른 가정을 세울만 하기에 충분

〈표 31〉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31	18	23	3	25
		f	11	34	25	17	13
	b	m·f	19	32	18	26	5
	c	m	10	41	27	8	14
		f	21	29	29	3	18
	d	m	6	38	31	6	19
		f	16	45	23	12	4
	e	m	30	41	12	11	6
		f	8	51	27	14	—
	비 종 교 군	f	m	20	22	38	11
f			20	36	29	12	3
g		m·f	26	50	7	9	8
h		m·f	31	43	16	6	4
i		m·f	24	37	19	13	7
j		m	37	31	16	9	7
	f	32	45	18	5	—	
학 과	인 문 계	m	32	38	16	6	8
	사 회 계	m	30	41	13	8	8
	공 업 계	m	33	17	24	20	6
	이 과 계	m	48	30	5	5	12
	농 업 계	m	32	36	16	8	8
	간 호 과	f	51	19	30	—	—
학 년	1	m	34	33	19	8	6
	2	m	19	36	21	8	16
	3	m	34	37	15	8	6
	4	m	28	43	16	9	4

한 것으로 생각된다.

b. 학과별 경향을 살펴보면 간호학과의 경우에서 전혀 반대 의견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주목되며 학년별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자유를 주어야하며 어떤 종류의 간섭도 해선 안된다. 〈표 32〉

a.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계 대학과 천주교계 대학의 비종교 집단에서는 자살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39%~75%). 전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안락사 문제에 대해 허용적이면서도 자살 문제에는 부정적인데 치우친다. 이러한 반응은 아마도 종교 교육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

b. 불교 집단에서 남학생은 자살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적인데 비해 여학생은 거부적이다.

<표 32>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18	8	12	34	28
		f	18	20	15	27	20
	b	m · f	17	7	24	34	18
		c	m	14	18	23	28
	f		9	10	17	43	21
	d	m	6	13	5	43	32
		f	—	16	23	45	16
	e	m	20	34	23	12	11
		f	—	36	21	29	14
	비 종 교 군	f	m	11	25	25	32
f			5	27	22	41	5
g		m · f	14	19	19	36	12
		h	m · f	19	31	19	22
i			m · f	20	19	30	22
		j	m	25	19	20	30
f	13		50	18	13	6	
학 과	인 문 계	m	28	16	24	22	10
	사 회 계	m	16	22	17	39	6
	공 업 계	m	18	25	20	23	14
	이 과 계	m	30	25	11	30	4
	농 업 계	m	16	28	24	24	8
	간 호 과	f	15	45	15	15	10
학 년	1	m	16	27	25	26	6
	2	m	14	17	23	38	8
	3	m	18	22	21	25	14
	4	m	22	22	16	33	9

c. 비기독교계 대학의 비종교 집단에서는 대체로 자살을 허용하는데 치우친다(39%~73%).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임의로운 일로 받아 들이는 것 같다.

d. 학과, 학년별 반응차는 없다.

◎ 의사의 권고를 제외하고 태아의 유산은 불법화해야 한다. <표 33>

a. 기독교 대학과 천주교 대학의 기독교 집단, 그리고 천주교 집단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의사권고 이외의 태아 유산은 불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44%~65%).

b.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비종교 대학의 여학생 기독교 집단, 기독교 대학의 여학생 비종교 집단에선 의사권고 이외의 태아유산에 대해 남학생보다 훨씬 누그러진 태도를 보인다.

c. 비종교 집단에선 대체로 의사 권고 이외의 태아 유산에 대해 허용적인 편이다(45%~59%).

〈표 33〉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34	20	18	19	9
		f	19	25	24	24	8
	b	m·f	31	26	25	12	6
	c	m	24	21	34	14	7
		f	8	10	30	34	18
	d	m	19	26	42	10	3
		f	15	41	7	29	8
	e	m	10	20	23	24	23
		f	21	21	51	5	2
	비 종 교 군	f	m	9	20	36	26
f			3	24	17	44	12
g		m·f	6	25	10	45	14
h		m·f	15	19	21	33	12
i		m·f	7	20	20	33	20
j		m	14	14	19	39	14
	f	10	10	23	49	8	
학 과	인 문 계	m	8	22	16	35	19
	사 회 계	m	12	18	26	22	22
	공 업 계	m	6	20	18	44	12
	이 과 계	m	4	36	17	19	24
	농 업 계	m	20	20	31	16	13
	간 호 과	f	20	17	18	30	15
학 년	1	m	15	12	37	20	16
	2	m	6	31	25	17	21
	3	m	10	13	15	49	13
	4	m	16	17	22	33	12

d. 학과, 학년별 차이는 없다.

◎ 사형이란 형벌은 야만적이니 폐지해야 한다. 〈표 34〉

a. 종교 집단에서는 남녀 불문하고 사형 폐지에 동의하는 편이다(46%~62%).

b. 기독교 대학의 비종교 집단과 비종교 대학의 기독교 집단에서 남학생은 사형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학생은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는 편이다.

c. 비종교 집단에서는 사형 폐지에 반대하는 편이다(29%~50%).

d. 전체적으로 살펴볼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사형 폐지에 더 호의적이고 전항에서 살펴본 태아 유산 문제와는 달리 사형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 집단이 온건하면서도 진보적인 반응을 보인데 비해 비종교 집단은 좀더 완고하고 보수적인 반응을 보여준것 같다.

<표 34>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28	18	13	13	28
		f	27	25	25	19	4
	b	m • f	32	10	21	31	6
	c	m	17	25	13	31	14
		f	21	24	30	16	9
	d	m	36	26	19	10	9
		f	28	27	21	20	4
	e	m	38	17	15	20	10
		f	20	33	23	14	10
	비 종 교 군	f	m	18	11	30	25
f			17	32	22	24	5
g		m • f	15	25	10	34	16
h		m • f	18	19	14	35	14
i		m • f	11	21	24	27	17
j		m	21	21	16	21	21
	f	15	13	35	27	10	
학 과	인 문 계	m	24	34	10	12	20
	사 회 계	m	14	22	19	25	20
	공 업 계	m	10	28	19	29	14
	이 과 계	m	30	4	17	24	25
	농 업 계	m	11	21	27	25	16
	간 호 과	f	21	4	35	29	11
학 년	1	m	12	18	30	25	15
	2	m	14	22	22	24	18
	3	m	14	41	13	16	14
	4	m	30	12	10	23	25

e. 학과, 학년별 반응차는 없다.

이상 살펴본 6개 문항은 종교와 관련된 사회적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이었는데 종교문제 이전에 Humanism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性向의 문항에 대해서는 종교 집단과 비종교 집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종교적 성향이 강한 문항에 대해서는 종교 집단이 보수적이었고 사회적 성향이 더 강한 문항에 대해서는 비종교 집단이 더 보수적인 반응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좀더 온건한 반응을 보여준 것 같다.

(8) 자아가 더 강조된 문항들의 비교

◎ 종교는 인간을 유약하게 한다. <표 35>

a. 기독교, 천주교 집단에서는 종교가 인간을 유약하게 한다는데 대해 부정하는 경향을 보

〈표 35〉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3	14	17	29	37
		f	8	22	24	26	20
	b	m·f	5	20	18	44	13
		c	m	7	24	10	21
	f		12	9	14	41	24
	d	m	19	25	2	18	36
		f	13	3	20	59	5
	e	m	17	8	45	24	6
		f	2	29	33	28	8
	비 종 교 군	f	m	20	18	35	25
f			5	34	30	29	2
g		m·f	10	26	14	26	24
		h	m·f	7	24	39	24
i			m·f	11	20	40	22
		j	m	12	18	33	26
f	5		25	27	40	3	
학 과	인 문 계	m	8	32	28	17	15
	사 회 계	m	20	18	20	39	3
	공 업 계	m	11	25	15	43	6
	이 과 계	m	10	42	24	12	12
	농 업 계	m	16	9	37	29	9
	간 호 과	f	5	20	30	41	4
학 년	1	m	16	22	21	33	8
	2	m	12	29	19	31	9
	3	m	12	21	28	33	6
	4	m	16	26	33	17	8

여주고 있으나 그외의 집단은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b. 이 문항은 인간의 어떤 측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그저 막연히 유약하게 한다고만 지적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지 못한 반응을 보여 준 것 같다.

c. 그런데 기독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Christ Commune"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⁵⁾ 연구 결과에 의하면 Jesus people은 대체로 약물·음주·흡연·婚前性·재물への 탐닉 등을 멀리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며 복음의 전파와 실천에 열성적이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겸손을 미덕으로 알기는 한 반면에 다른 비종교 집단에 비해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하고 자기 확신감이 적고 인간관계에서 불안정성을 보이는 동시에 성취

(5) Psychology Today: Dec. 1972. "Jesus people".

욕, 지배욕, 이성애 등의 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종교 집단의 금욕적 행동이 높지 평가될 수도 있는 한편 인간의 자연스런 욕구 수준의 저하 때문에 오는 유약성을 낳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이 문제는 personality의 측면에서 좀더 심리학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해 볼 만한 일인것 같다.

d. 학과, 학년별 차이는 없다.

◎ 종교의 가르침에도 의심할 점이 많다. <표 36>

a. 종교집단, 비종교 집단이 모두 종교의 가르침에도 의심할 점이 있다는데 동의하는 편이다(38%~84%).

b. 종교집단의 호의적 반응은 앞에서 살펴본 지도자 문제의 반응처럼 맹신적 종교적 태도보

<표 36>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8	43	28	17	4
		f	6	41	28	17	8
	b	m·f	12	40	29	10	9
	c	m	7	48	30	8	7
		f	6	32	26	21	15
	d	m	9	36	25	14	6
		f	14	32	39	10	5
	e	m	24	54	16	4	2
		f	21	37	27	10	5
	비 종 교 군	f	m	18	58	11	11
f			17	55	19	7	2
g		m·f	16	49	27	7	1
h		m·f	26	51	19	4	—
i		m·f	24	46	20	5	5
j		m	17	53	19	9	2
	f	29	55	13	2	1	
학 과	인문계	m	24	50	18	8	—
	사회계	m	18	53	18	7	4
	공업계	m	22	58	9	7	4
	이과계	m	30	54	5	10	1
	농업계	m	32	47	16	4	1
	간호과	f	40	40	9	9	2
학 년	1	m	27	55	13	5	—
	2	m	20	49	17	10	4
	3	m	18	60	14	6	2
	4	m	18	51	13	14	4

다는 選別力있는 종교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한 반응이라 생각된다.

c. 학과, 학년별 반응차는 없다.

◎ 神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인간들이 창조해낸 관념적 존재다. <표 37>

a. 기독교, 천주교 집단은 신의 존재가 인간의 관념적 존재라는데에 부정하는 입장을 보여 주고 있는데(50%~61%) 반해, 불교와 무종교 집단에서는 神을 인간의 관념적 존재라는데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57%~79%). 다시 말해서 앞의 두 집단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편이지만 뒤의 두 집단은 신의 존재에 의구적 태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겠다.

b. 학과, 학년별 차이는 없다.

<표 37>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9	24	14	17	36
		f	7	24	9	31	29
	b	m·f	11	22	17	32	18
	c	m	8	18	16	35	23
		f	6	16	17	28	33
	d	m	13	14	18	14	41
		f	3	30	15	37	15
	e	m	36	42	6	6	10
		f	35	44	20	1	—
	비 종 교 군	f	m	23	46	18	11
f			20	37	24	17	2
g		m·f	24	54	10	9	3
h		m·f	42	32	14	9	3
i		m·f	24	52	13	9	2
j		m	41	32	19	4	4
	f	25	45	18	6	6	
학 과	인문계	m	31	38	11	10	10
	사회계	m	42	38	15	4	1
	공업계	m	32	47	11	8	2
	이과계	m	36	53	5	4	2
	농업계	m	45	33	17	3	2
간호과	f	42	38	10	6	4	
학 년	1	m	40	33	21	4	2
	2	m	36	43	7	8	6
	3	m	28	41	17	8	6
	4	m	28	43	16	9	4

◎ 종교적 경험은 신의 의지라기 보다 인간의 심층에 자리잡고 있는 약한 마음이 그 마음 상태로 부터 탈피하고 싶은 욕구에서 이루어진다. <표 38>

a. 종교집단 비종교집단이 모두 종교적 경험이 약한 마음에서 탈피하고 싶은 욕구에서 이루어진다는데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46%~88%).

b. 비종교 집단에서 이 문항에 호의적 반응을 보인 것은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神의 존재를 인간의 관념적 존재로서 이해하는 것과 매우 부합되는 반응으로 여겨진다.

c. 그러나 종교집단의 호의적 반응경향은 신과 종교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 종교집단이라 해도 그들이 모두 다 “신의 의지”에 의한 “종교적 경험”을 실제로 경험할만한 계기가 없었던 까닭에 “신의 의지”라는 측면에서 보라도 “인간의 약한 심층”면에서 이해한 반응이 아

<표 38>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3	44	32	13	8
		f	15	48	20	8	9
	b	m·f	18	39	11	30	2
	c	m	13	36	17	24	10
		f	18	28	14	31	9
	d	m	13	42	12	20	13
		f	8	49	27	10	6
	e	m	25	53	17	2	1
		f	36	52	6	5	2
	비 종 교 군	f	m	14	52	18	11
f			32	44	17	5	2
g		m·f	21	54	16	8	1
h		m·f	32	52	15	1	—
i		m·f	35	34	17	7	7
j		m	38	50	7	4	1
	f	32	55	10	2	—	
학 과	인 문 계	m	24	62	6	6	2
	사 회 계	m	30	46	14	6	4
	공 업 계	m	32	43	15	2	8
	이 과 계	m	16	54	25	3	2
	농 업 계	m	53	29	13	3	2
	간 호 과	f	40	48	10	2	—
학 년	1	m	37	39	15	6	3
	2	m	26	45	17	8	4
	3	m	21	51	16	8	4
	4	m	32	48	14	4	2

닌가 추측된다.

d. 학과, 학년별 차이는 없다.

(9) 來世에 관한 문항의 비교

◎ 일단 죽으면 그만이지 내세란 없다. <표 39>

a. 기독교, 천주교 집단에서는 내세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는데 (55%~70%) 비해 불교, 비종교 집단에서는 내세에 대해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보여준다(38%~54%).

b. 비종교 집단에서도 내세란 없다는 반응보다는 중간 반응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 경향은 “내세문제”가 인간의 경험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으로 생각된다.

<표 39>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7	8	30	17	38
		f	6	8	25	19	42
	b	m·f	6	18	17	19	40
	c	m	10	15	16	28	31
		f	3	1	26	31	39
	d	m	10	2	19	36	33
		f	4	9	27	55	5
	e	m	13	16	38	13	20
		f	7	8	51	28	6
	비 종 교 군	f	m	16	16	43	18
f			7	12	40	32	9
g		m·f	9	18	54	15	4
h		m·f	24	15	42	15	4
i		m·f	20	17	45	13	5
j		m	19	12	40	17	12
	f	8	17	52	17	6	
학 과	인문계	m	20	16	35	22	7
	사회계	m	14	23	47	10	6
	공업계	m	24	23	27	17	9
	이과계	m	24	12	41	19	4
	농업계	m	25	21	25	21	8
	간호과	f	10	12	48	21	9
학 년	1	m	22	16	40	17	5
	2	m	17	21	37	15	10
	3	m	18	16	37	18	11
	4	m	25	27	19	22	7

c. 학과별, 학년별로도 뚜렷한 경향을 보여주지 않는다.

(10) 종교인에 관한 문항의 비교

◎ 종교인은 대개 위선자다<표 40>

a. 종교집단과 비종교 대학의 무종교 집단에서는 종교인이 위선자라는 데에 반대하는 편이 다(41%~72%) 종교계 대학의 무종교 집단에서는 중간 입장에 더 치우치는 결과를 보인다((37%~47%).

b. 종교와 먼 집단보다 종교와 약간의 관련을 맺고 있는 집단에서 종교인이 위선자라는데 강한 부정을 보여주지 않은 이러한 반응 결과는 매우 주목할만한 결과인 것 같다. 아마도 중

<표 40>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	—	35	35	30
		f	8	9	25	33	25
	b	m·f	5	19	25	23	28
	c	m	6	8	14	55	17
		f	6	10	29	34	21
	d	m	—	14	5	26	55
		f	—	8	33	37	22
	e	m	6	17	25	28	24
		f	—	8	41	36	15
	비 종 교 군	f	m	7	14	45	32
f			3	22	41	32	2
g		m·f	9	12	40	32	7
h		m·f	12	15	47	19	7
i		m·f	19	17	37	24	3
j		m	8	19	32	33	8
	f	5	20	29	40	6	
학 과	인문계	m	10	20	40	24	6
	사회계	m	10	15	29	37	9
	공업계	m	14	16	32	31	7
	이과계	m	25	18	35	18	4
	농업계	m	13	25	37	20	5
간호과	f	5	25	39	29	2	
학 년	1	m	15	15	40	25	5
	2	m	12	13	35	36	4
	3	m	6	23	35	31	5
	4	m	10	16	35	28	11

교와 먼 집단보다 약간의 가까운 집단에서 종교인의 모순을 좀더 감지하는 것 같다.

c. 학과, 학년별 차이는 없다.

(11) 기 타

◎ 어떠한 고난도 神이 주는대로 달게 받아야 하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죄악이다. <표 41>

a. 불교 남학생을 제외한 종교 집단에서는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죄악이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다(45%~80%).

b. 같은 종교계 대학의 비종교집단 중에서 기독교 대학의 경우 고난을 극복 못한 자살을 죄악시 하는데 비해 비기독교 대학에서는 고난을 극복 못한 자살도 인정해주는 경향에 쏠린다. 같

<표 41>

단위 : %

	집 단	성 별	반 응				
			SA	A	U	D	SD
종 교 군	a	m	50	30	7	8	5
		f	24	36	17	13	10
	b	m·f	25	45	18	10	2
	c	m	38	37	15	2	8
		f	34	39	18	3	6
	d	m	55	26	10	3	6
		f	20	52	20	6	2
	e	m	16	17	32	16	19
		f	14	31	27	21	7
	비 종 교 군	f	m	13	24	32	29
f			15	20	35	21	9
g		m·f	12	24	22	32	10
h		m·f	21	15	29	16	19
i		m·f	3	15	32	35	15
j		m	11	16	17	29	27
	f	5	22	30	28	15	
학 과	인문계	m	24	4	17	23	32
	사회계	m	11	21	22	26	20
	공업계	m	12	14	25	30	19
	이과계	m	5	5	18	42	30
	농업계	m	16	28	27	20	9
	간호과	f	5	20	24	26	25
학 년	1	m	16	16	27	29	12
	2	m	14	25	21	19	21
	3	m	16	14	27	25	18
	4	m	14	17	27	24	18

은 비종교 집단이면서도 기독교 대학과 비기독교 대학과의 이러한 반응차는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 교육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추측되는 한편, 비기독교 대학생의 경우 이 문항에서 풍기는 “어떠한 고난도 신이 주는대로 달게 받아야 하므로……”라는 내용에서 일말의 저항 의식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c. 학과 학년별 차이는 없다.

(12) 종교에 관한 자유반응

질문지 末尾에 종교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한해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의구점이나 기타 의견들을 자유로이 기재할수 있도록 공란을 남겨 두었는데 모두 262명이 자유 반응을 보여 주었다. 연구자는 각각의 종교 집단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 독특한 의견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였는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나 모두 대체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의견들이 동일하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 262명의 반응을 빈도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제시해 보기로 했다.

①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는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하지 못하는 비현실적, 원시적 선교(포교)방법을 지니고 있다. 생활과 유리되지 않으며 대중과 호흡이 잘 맞고 초신자들에게도 아무런 갈등없이 쉽게 종교인이 될수 있는 좀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및 체계있는 종교교육과 정책의 실현이 아쉬우며 교회의 전도도 새로운 방향에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52명

②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는 종교자체에 절대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독선적인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인간의 행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맹종을 강요하는 모순을 갖기 쉽다. 따라서 종교를 위한 종교의 모순으로부터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종교가 되도록 모든 교직자와 종교인의 노력이 필요하다—49명

③ 종교인들은 자신의 의지를 망각하고 맹신적 무비판적이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오류에 빠지는 한편 사명감과 실천이 부족한 위선적 종교인으로 끝나는 수가 허다하다. 좀더 자신에게 성실하고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 설 수 있는 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46명

④ 교직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자기 이익과 물질적 추구, 이권경쟁의 노예가 되고 있다—34명

⑤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는 神의 존재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이 많으며 교리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많다. —31명

⑥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는 종파가 너무 많으며 서로 다른 종파끼리 배타적이고 자기의 종파만을 고집한다. —29명

⑦ 종교儀式이 종교의 참뜻에 위배될 정도로 형식적이다. —10명

⑧ 모든 인간들이 좀더 쉽게 종교를 받아 들일 수 있는 범종교운동 또는 새로운 범종교가 있으면 좋겠다. —8명

⑨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는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지나치게 사회 참여를 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폐단을 낳고 있다. —3명

IV. 다음 연구를 위한 提案

(A) 본 연구는 연구기간이 4月 중반부터 9月 말 까지였는데 표집 대상자가 대학생이어서 캠퍼스가 하기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표집이 완료 되어야만 하는 까닭에 질문지 작성과 표집에 많은 시간적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집 상태도 미흡하고 집단마다 표집된 수량이 동일하지 못하여 좋은 반응 결과를 기대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연구를 더 함에 있어 표집량을 충분히 하고 철저한 예비검사를 통해 문항을 좀더 다듬고 연구한다면 더욱 더 재미 있는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B) 본 연구에서는 종교 윤리, 신의 이미지, 사회적 태도 등의 몇가지 제한된 범주에다가 제한된 수량의 문항만으로 종교적 태도를 비교하였다. 앞으로 이런 연구를 더함에 있어 한가지 범주를 연구 주제로 삼아 좀더 많은 문항을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는 것도 꽤 재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다.

(C) 본 연구에서는 神學校 학생들이 제외되었다는 결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연구를 더함에 있어 신학생은 물론 신부, 수녀, 승려들까지도 표집 대상으로 삼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D)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논문이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기독교적 색채가 농후하다. 앞으로 이런 연구를 더함에 있어 불교적 색채가 강한 문항, 또는 천주교 색채가 강한 문항들을 늘려 각 종교 집단별 차이를 검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참 고 문 헌

Anne, Anastasi, Psychological Testing 2nd Ed.

Eysenk, H.J., Sense and Nonsense in Psychology: A volume of the pelican psychology series.

Frieda, Fordham, An Introduction to Jung's Psychology.

Psychology Today, Dec, 1972.

기독교계대학의 종교교육 유형에 대한 효과성에 관한 연구: 유병춘. 1971. 서울여대

사회적 태도 조사에 관한 일연구: 이만규. 고대 심리학잡지. 1966.

성서의 실존론적 이해: R, 볼트만저. 유동식. 허혁 번역, 대한 기독교서회

월간 대화: 제31호, 크리스찬 아카데미.

인격의 측정 및 진단: 김재은저. 교육출판사.

한국 기독교대학 교육내용의 기능과 성격에 관한 종합적 연구: 송전. 서울여. 계명대 공동연구. 1973.

부 록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년
성 별 _____	종 교 _____	

이 설문지는 대학생들의 심층을 이해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5 | 4 | 3 | 2 | 1 |
|---|---|---|---|---|---|
| <input type="radio"/> 매우 찬성하거나 긍정되는 경우에는 | | | | | |
| <input type="radio"/> 찬성 되거나 긍정되는 경우에는 | | | | | |
| <input type="radio"/> 찬반이 아닌 중간 입장의 경우에는 | | | | | |
| <input type="radio"/> 반대되는 의견에는 | | | | | |
| <input type="radio"/> 매우 반대 되거나 부정되는 경우에는 | | | | | |
- 한 문항도 빠지말고 가능한한 분명한 의견을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5 | 4 | 3 | 2 | 1 |
|--|---|---|---|---|---|
| 1. 어떠한 고난도 神이 주는대로 달게 받아야 하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죄악이다.
..... | | | | | |
| 2. 의사의 권고를 제외하고 태아의 유산은 불법화 해야한다. | | | | | |
| 3. 종교는 현대문명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방패이다. | | | | | |
| 4. 신앙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일부이다. | | | | | |
| 5.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과는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다른 神人이다. | | | | | |
| 6. 인간이란 아담과 이브의 후예이다. | | | | | |
| 7. 사형이란 형벌은 야만적이니 폐지해야 한다. | | | | | |
| 8. 인간의 모든 어려움은 神이 자기의 정하신 뜻에 의해 내려진 시험일 것이다. | | | | | |
| 9.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神의 인도에 의해 선출된다. | | | | | |
| 10. 일단 죽으면 그만이지 내세란 없다. | | | | | |
| 11. 종교인은 대개 위선자다. | | | | | |
| 12. 죄악이란 神(하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 | | | | |
| 13. 神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인간들이 창조해낸 관념적 존재다. | | | | | |
| 14. 인간의 고뇌는 종교를 통해서 극복하기가 쉬워진다. | | | | | |
| 15. 약한자를 돕는것은 적자 생존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 | | | | |
| 16. 사람의 죽음은 神의 주관에 의한 것이다. | | | | | |
| 17. 종교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은자가 불행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 | | | |
| 18. 종교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 가부를 묻지말고 믿어야 한다. | | | | | |
| 19.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자유를 주어야 하며 어떤 종류의 간섭도
해선 안된다. | | | | | |
| 20. 우주는 神이 창조 하셨다. | | | | | |
| 21. 사회 부조리 현상은 궁극적으로는 전적으로 神의 mistake(잘못)이다. | | | | | |

A study on religious attitude of Korean college students

Chung, Pong-eun

Summary

This study was to examine from psychological viewpoint through the questionnaire the opinions, on the religious of the college students in Korea.

I tried to compare with the opinions of christian students and non-christian. With that result, to examine the effects of christian education and to grope the direction of that in future is purpose of this study.

These main findings obtain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1. A religious tendency
 - a. A religious tendency is more firm christian groups than non-christian.
 - b. Christian students were more christianized than non-christian.
 - c. In the respect of the effects it found to have no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education being composed in schools and in other fields.
 - d. In general, a religious tendency of female was firmer than that of male.
2. Christian tendency
 - a. Christian groups showed affirmative response on christian items and non-christian groups negative response.
 - b. Non-religious groups of the mission school took a middle of the neutral attitude.
 - c. Christian tendency of female was more firm than that of male.
3. The opinions of religious value
 - a. Even groups which shown negative response on christian items were acceptable on the value or role of the religion.
 - b. While most students showed the religious response affirmatively they thought to be wrong the religious force them to believe.
4. Most students gave a higher value to a religious doctrine and seemed to have endowed a religious spirit naturally.
5. Social attitude
 - a. The religious groups was conservative on the religious items and the non-religious

on the social items.

- b. Female was more moderate than male.
6. Non-religious groups were appealed stronger than religious groups in the consciousness of the ego or self-will.
7. The demands on present religious affairs most students pointed out general religious affairs as follows;
 - a. The way of missionary work have fallen always behin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 b. The present religious is not for the people nothing but religion for religion.
 - c. The ministers were spoiled.
 - d. The factional strife is serious.
 - e. A religious ritual is excessively formal.
 - f. Pan-religion is wishful to be in the world.